

# 禪佛敎의 마음공부와 세상구제

— 知訥「勸修定慧結社文」의 한 分析 —

변희욱

(서울대 철학과 대학원)

## 1. 머리말: 마음공부와 사회구원

1. 이 글은 禪佛敎에서 사회참여나 윤리를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설적 검토로 시도된 기획이다. 최근에 ‘불교의 사회참여와 윤리’라는 주제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는 바로 위의 주제에 관해 많은 논의를 축적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승불교 전통에도 닿아 있다. 필자의 이 글은 동아시아 불교의 전통과 현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 주제가, 사회와의 격절성을 강조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禪佛敎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普照 知訥(1158-1210)의 눈(주로 『勸修定慧結社文』)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2. 지눌은 한국불교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한국 불교(학)계의 최고의 이슈인 “수행방법론 논쟁”, “조계종 종조 논쟁”에서 지눌이 논의의 한 축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국불교에서의 지눌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2·13 세기의 지눌은 21세기를 3년 앞둔 지금도 논쟁의 주역이며, 한국의 학계는 아직도 1,200여 년 전에 정리)되었던 논쟁(‘도약적 인식: 점층적 인식’, 그리고 이 전

---

1) 宗密(780-841; 圭峰)은 『禪源諸詮集都序』와 『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에서 禪을 4가지로 분류하면서, 漸에 대한 頓의 우월성을 주장한 후, 다시 頓悟체계 내부에서 頓悟(頓修)와 頓悟漸修를 비교 분석했다. 그리고 지눌은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에 이 이론을 요약·소개했다.

이 전후의 수행의 문제)을 아직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눌에 대한 연구는 心性論(空寂靈知的 體用구조), 수행론(頓悟漸修), 結社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결사운동 연구는 역사적 자료정리에 머물러 있으며, 그의 결사운동이 선불교의 세계관, 사회관과 어떻게 맥락이 닿아 있는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이 글에서는 지눌의 고전읽기와 삶의 표현을 “세상에서 멀어지기”에서 단초를 얻어 “세상으로 들어오기”로 진행한다는 가정<sup>2)</sup>적 틀을 가지고, 결사운동을 포함한 그의 실천활동과 논리의 전개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방법 ①: 이 글에서는 지눌이 세계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 시도한 여러 결단과 언명을, “세상 멀어지기”와 “세상 들어오기”라는 가정적인 두 개의 글기등으로 재편집해 볼 것이다.

(①-1) 선사로서의 지눌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도) “세상에서 멀어지기”를 감행한다. 지눌의 세상 멀어지기는 마음공부를 위한 것인데, 이른바 一次 心機一轉(『六祖壇經』을 보고 本來淸淨心을 깨달음)과 최초의 結社시도가 이것이다.

(①-2) 사회인으로서의 지눌,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눌은 (역시 당연하게도) “세상으로 들어오기”, 나아가 중생구제를 시도한다. 이른바 三次 心機一轉(『大慧普覺禪師語錄』를 보고 일상생활의 중요성을 깨달음)과 修禪寺 결사가 이것이다.

연구방법 ②: 연구방법 ①은 “세상 멀어지기”/“세상 들어오기”, “마음 공부”/“세상구제”라는 모순관계로 보이는 개념쌍을 짝지워서 검토하는 방법인데, 지눌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본다. 그리고 이 해결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장치는 무엇일까를 알아본다.

2) 최병헌은 이를 “속세를 떠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던 정혜결사가 속세의 방향으로 돌아왔다.”고 정리한다. 「定慧結社の 趣旨와 創立過程」, 『보조사상』 56합집, p.88.

그리고 한기두는 “求道結社에서 行道結社로”라고 표현한다. 한기두, 「定慧結社の 본질과 그 변천」, 『보조사상』 1, p.48.

4. 연구방법 ③: 연구방법 ①, ②를 통해서, 지눌의 문건을 “불교의 이론과 실천(혹은 초탈과 참여)”의 관계를 고민하고 창조한 결과로 해석한다. “세상에서 멀어지기”와 마음공부에서 출발하여 “세상으로 돌아오기”와 세상구제로 귀결되는 과정과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관계를 푸는 논리전개는, 지눌의 불교이해와 세계관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글 역시 지눌이 어떻게 이 모순을 풀고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필자는 더불어 지눌의 해결 방식을 선불교 일반의 해결방식과 대략적으로 비교해 보기도 할 것이다.

## 2. 지눌의 “세상 멀어지기”와 “세상 들어오기”

### — 마음과 세상의 중첩

지눌이 定慧結社를 도모한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그리고 지눌이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많은 글을 남기고, 이론을 체계화한 내적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우선 지눌이 남긴 타임 캡슐에서 추적의 한가닥 꼬트머리를 잡아보도록 하자.

『勸修定慧結社文』의 첫머리에서 지눌은 결사운동의 취지를 다음과 같은 화두로 시작한다.

‘땅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난다.’ 땅을 떠나서는 일어날 수 없다. 한마음(一心)이 미혹하여 번뇌를 끝없이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며, 한마음을 깨달아 신묘한 능력을 한없이 일으키는 자는 부처이다. 미혹과 깨달음은 비록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한마음에 말미암는다는 점이니,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다.

내가(지눌이) 젊어서부터 祖師의 [가르침의] 영역에 몸을 던져 禪房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부처와 조사가 자비를 내린 법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요점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인연[의 작용]을 멈추게 하여 마음을 비워 가만히 계합하고 밖에서 찾지 말라는 것이었다.<sup>3)</sup>

3) 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離地求起 無有是處也 迷一心而起無邊煩惱者 衆生也.

『勸修定慧結社文』의 서론에 해당하는 위의 문장에서 우리는 지눌의 세계관과,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불교이해를 추출해낼 수 있다. 먼저 위에서 드러난 지눌의 세계관에 대해 짐작해 보도록 하자.

“땅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난다. 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라는 말에서, 우리는 지눌이 인간이 처해 있는 현재적인 상황과 그 극복의 기본 원칙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사람들은 땅 때문에 넘어진 상태(倒者)이다.’ 둘째, ‘넘어진 이유가 땅이라면 일어나는 근거도 땅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넘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이며, “땅”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지눌이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다: “한마음이 미혹하여 번뇌를 끝 없이 일으키는 자는 중생이다. 迷一心而起無邊煩惱者 衆生也.” 결국 “넘어졌다(넘어진 사람)”는 “번뇌를 일으켰다(번뇌를 일으킨 자)”이고, “땅”은 “한마음”이다. “땅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한마음이 미혹하여 번뇌를 일으키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통의 모든 사람(衆生)이 그러하다는 뜻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마음이 미혹하여 번뇌를 일으킨 모든 중생들은 한마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다음 지눌의 기본적인 불교이해를 보자. 지눌은 『大乘起信論』의 一心(不覺과 本覺구조)에 근거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즉 지눌의 세계관은, 세상을 발현하는 근거이면서 발현된 세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해결처로서 작용하는 한마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지눌은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대를 실현하라고 권유한다(離心求佛者亦無有是處也).

그런데 만일 위와 같은 해석, 즉 땅을 마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을 유일한 해석으로 삼는다면, 이 해석은 지눌이 언명한 어떤 부분과는 정합성을 가지지만, 다른 어떤 부분과는 정합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정합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을 보자.

悟一心而起 無邊妙用者 諸佛也 迷悟雖殊而要由一心 則離心求佛者 亦無有是處也 知訥 自妙年 投身祖域 遍參禪肆 詳其佛祖垂 慈爲物之門 要令我輩 休息諸緣 虛心冥契 不外馳求. 『勸修定慧結社文』, 普照全書 7쪽(이하 '결사문 p.7'로 표기).

국사는 일찍이 말하기를, '나는 보문사에서 [수도한 지] 이미 10여 년이 되었다. 비록 뜻을 얻어 부지런히 닦아 헛되이 보낸 일이 없었지만, 아직 情見을 버리지 못하여 무엇인가 가슴에 걸리는 것이 있어,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리산에 있을 때에 『大慧普覺禪師語錄』을 얻었는데, 거기에 “禪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도 있지 않으며, 일상에서 [객관과] 상응하는 곳에도 있지 않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먼저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일상 인연에 따르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곳을 버리지 않고 참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홀연히 눈이 열리기만 하면 선은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에서 딱 들어맞아, [마침내] 저절로 원수처럼 마음에 걸리던 그 어떤 것도 없어져, 당장에 편하고 즐거워졌다.’<sup>4)</sup>

金君綏가 쓴 「昇平府曹溪山修禪社佛日普照國師碑銘」에 따르면, 지눌은 위와 같이, “젊어서부터 祖師의 가르침의 영역에 몸을 던져 禪房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 모든 인연의 작용을 멈추게 하여 마음을 비워 가만히 계합하고 밖에서 찾지 않게 하면서”, 뜻을 얻어 10여 년 동안 보문사에서 부지런히 닦아 헛되이 보낸 일이 없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땅을 짚고 일어나라 = 마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해석과 잘 들어 맞는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지눌은 바로 이어서, “아직 情見을 버리지 못하여 어떤 것이 가슴에 걸려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고 술회했다. 김군수의 비명이 전혀 근거 없는 창작물(虛構)이 아니라면, (적어도 지눌의 경우) 출가하여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마음공부에 몰두하더라도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었다는 말인 셈이다. 이 점에서 지눌이 말한 “땅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난다.”라는 문장을 달리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 즉,

4) 師嘗言 予自普門已來 十餘年矣 雖得意動修 無虛廢時 情見未忘 有物礙膺 如響同所 至居智異 得大慧普覺禪師語錄云 「禪不在靜處 亦不在鬧處 不在日用應緣處 不在思量分別處 然 第一不得捨却靜處鬧處 日用應緣處 思量分別處 忽然眼開 方知 皆是屋裡事」 予 於此契會 自然物不碍膺 響不同所 當下安樂耳. 昇平府曹溪山修禪社佛日普照國師碑銘 并序(이하 비명), p.420.

→ 현실에서 괴로움을 겪는 일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인 땅 위에서 자연과 관계 맺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땅 때문에 힘들어 하므로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속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는 속세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런 가정적인 틀을 바탕으로 필자는 지눌이 “땅”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를 “마음”과 “속세(세상)”라는 두 가지 해석으로 읽어 보려 한다.

### 3. 結社의 목적1: 마음공부 — 頓悟

“땅” = “마음”

지눌에 따르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환자(넘어진 사람)이다. 그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눌의 처방은 무엇인가? 지눌의 처방은 “마음 바꾸기”이다. 병의 원인이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지눌은 선사답게 마음먹기를 바꿔 “한마음을 깨달아 마음에서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짐을 아는 자는 부처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눌은 『마음 닦기』를 위한 비결(修心訣)에서도 “마음 (닦기)를 멀리서 구하지 말고, 부처가 곧 마음”임을 아는 것이 처방이라고 한다. 하지만 파랑새가 내 앞에 있지만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의 부처는 몸을 떠나 있지 않지만 누구나 부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눌은 다음과 같은 신비한 處方을 제시한다.

三界(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세계)의 고통은 마치 불타는 집과 같거늘 어찌 그대로 머물러 참기만 하겠는가? 윤회를 면하려면 부처되기를 구하는 것 만한 게 없다. 부처되기를 구한다고 하지만 부처는 바로 이 마음이다. [그런데]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마음은] 이 몸 밖에 있지 않다. …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미혹한 지 이미 오래이므로, 제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제 본성이 바로 참 법임을 알지 못하여, 진리를 구하려 하면서도 멀리 성인에게 머무르고 부처되기를 구하려 하면서도 제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 하고, 본성 밖에 진리가 있다 하여, 그런 생각을 고집하면서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티끌처럼 많은 세월을 지나도록 ... 갖가지 고행을 닦더라도 그것은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아서 다만 수고롭기만 할 따름이다. 다만 제 마음만 알면 갠 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은 법문과 한없는 묘한 이치를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얻어질 것이다.

... 이로써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과거의 모든 부처도 다만 마음을 밝힌 사람이요,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마음을 닦는 사람이며, 미래의 공부할 사람들도 마땅히 이런 법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하는 사람은 부디 밖에서 찾지 말라. 마음의 본성은 오염되지 않아 본래 완전히 갖추어졌으니, 다만 헛되게 외부에 얽매어 있는 것만 벗어버리면 부처가 된다.<sup>5)</sup>

지눌은 “불타는 집”과 같은 세계(관)와 “고통받지만 본래는 淸淨心”을 갖는 인간(관)을 동시에 제시한다. 지눌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들은 본래적으론 淸淨心을 가지고 있기에, 고통이라는 현실을 극복할 근거를 내부적으로 원래부터(not aquired, but innate)지니고 있는 셈이다. 이런 세계관·인간관을 전제로 지눌은 “부처는 바로 이 마음 佛即是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눌은 부처되기를 구하거나, 그를 위한 특별한 경로를 찾는 것은 미혹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그런 일은 모래로 밥을 짓는 일과 같은 것이다. 그럼 지눌의 고통 해소 방법, 즉 부처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제 마음알기 識自心”인데, 이는 오염이 없는 완전으로서의 마음(心性無染 本自圓成)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지눌의 (방법적) 제안은 외부와의 관계 끊기(切莫外求, 但離妄緣)이다.

5) 三界熱惱 猶如火宅 其忍淹留 甘受長苦 欲免輪迴 莫若求佛 若欲求佛 佛即是心 心何遠覓 不離身中 ... 嗟夫 今之人迷來久矣 不識自心是真佛 不識自性是眞法 欲求法而遠推諸聖 欲求佛而不觀己心 若言心外有佛 性外有法 堅執此情 欲求佛道者 縱經塵劫 ... 修種種苦行 如蒸沙作飯 只益自勞爾 但識自心 恒沙法門無量妙義 不求而得 ... 是知離此心外 無佛可成 過去諸如來 只是明心底人 現在諸賢聖 亦是修心底人 未來修學人 當依如是法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心性無染 本自圓成 但離妄緣 即如如佛. 修心訣, p.31.

## (3-2) 마음공부를 위한 지눌의 제안

## — 외부와의 관계 끊기; “세상에서 멀어지기”

지눌에 의하면, 현실의 사람은 환자이고, 아픈 증상의 病因과 病所는 마음이다. 지눌은 위의 진단을 통해, 자가 마음치료라는 처방으로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지눌의 이 처방에 대해 환자(현실의 아픈 사람; 衆生)는 다음과 같이 물어 볼 것이다: “자가 마음치료의 방법은 무엇인가?” 지눌은 다음과 같이 알려 줄 것이다: “자가 마음치료의 방법은 특별한 전문가의 외과적 시술이나 전문적 투약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을 확신하는 정신·심리적 자기확신(psychic self-confidence)이며, 그 자기확신을 위해서는 외부와의 관계를 끊어라.” 그렇다면 이제, 외부와의 관계를 끊는 방법을 알아보자. — 그 방법은 “세상 멀어지기”라고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지눌은 明宗 12년(1182, 지눌 25세) 普濟寺에서 개최된 談禪法會에 참석하여 동료들에게 結社를 제의하며, ‘세상일에 구속되지 않도록 (세상을 멀리하여) 산 속에 은거하면서 선정을 닦아 기쁨을 느끼자’고 권유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이런 일들<sup>6)</sup> 한심스럽게 여겨왔다. 마침 壬寅(1182) 정월에 개경 보제사의 단선법회에 참석했다가, 하루는 동학 10여인에게 약속(제안)했다: ‘이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 속에 은거하면서 結社를 만들어 항상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닦기에 힘쓰자. 예불하고 독경하고 운력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소임에 따라 수양하여 한평생 구속 없이 지내면서 真人達士의 높은 행을 따른다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sup>7)</sup>

6) 승려가 불도를 닦지 않고 衣食만을 축냄,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함,...

然返觀我輩 朝暮所行之迹 則憑依佛法 裝飾我人 區區於利養之途 汨沒於風塵之際 道德未修 衣食斯費 雖復出家 何德之有 噫夫欲出離三界 而未有絕塵之行 徒爲男子之身 而無丈夫之志 上乘弘道 下闕利生 中負四恩 誠以爲恥. 결사문, p.7.

7) 知訥 以是長歎 其來久矣 歲在壬寅正月 赴上都普濟寺 談禪法會 一日與同學十餘人 約曰罷會後 當捨名利 隱遁山林 結爲同社 常以習定均慧爲務 禮佛轉經 以至於執勞運力 各隨所任而經營之 隨緣養性 放曠平生 遠追達士眞人之高行 則豈不快哉. 결사문, p.7.



같은 해(大定 22년, 1182, 25세), 지눌은 승려선발 시험에 합격한다. 그 후 1190년, 지눌은 昌平 淸源寺에서 마음공부에 대한 큰 轉回를 체험한다. 이를 지눌의 “1차 심기일전”<sup>8)</sup>이라 하는데, 선사 지눌이 자신의 마음공부에 대한 생각을 최초로 확인·체험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큰 전회를 체험하고 난 후의 지눌의 태도이다. 김군수가 쓴 碑銘에 따르면 지눌은 1차 심기일전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하루는 우연히 서가에서 『육조단경』을 펼쳐 보다가 ‘眞如自性이 생각을 일으키므로 비록 육근이 보고 들어 깨달아 안다 하더라도, 진여의 성품은 외부의 현상에 물들지 않아 항상 自在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이에 놀라고 기뻐하며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것을 증득하였다. 그리하여 곧 일어나 佛殿을 돌고 외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뜻을 얻었다.

그 때부터는 … 항상 숲 속에 은둔하여 힘쓰면서도 조용히 도를 구하고자 하였다.<sup>9)</sup>

(덧붙이는 말; 그러나 지눌의 제의는 동료들의 찬동을 얻지 못한 듯한다. 결사문에는 7개의 문답이 있는데, 이는 지눌의 제의에 대해 동료들의 의문이 깊었음을 반증한다. 그리고 “모두 사방으로 흩어지고 아름다운 기약을 이루지 못한 지 거의 10년이 지났다”라는 구절은 결사가 시행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보면, 지눌의 ‘모여서 집단적으로 수도하자’라는 제의와 ‘현실을 멀리하여 수도하자’라는 제의는 당시 승려들에게는 이질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 8) 김군수의 碑銘에는 지눌이 육조단경, 신화엄론 그리고 대혜보각선사어록의 구절에서 큰 깨우침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지눌이 세 차례의 심적 전회를 겪었다고 해석한다. 위의 인용문이 소위 1차 심기일전이며, “2차 심기일전”을 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정 25년 을사(1185)에 하가산에 머물 때, 보문사에 몸을 기탁하고 대장경을 읽다가 李通玄 장자의 『화엄론』을 보고 더욱 신심을 내었다. 더듬고 파헤쳐 숨은 뜻을 탐색하고, (의미를 찬찬히) 곱씹고 정치한 의미를 맛보아, 이전의 얕이 갈수록 밝아졌다.”(越大定二十五年乙巳 遊下柯山 寓普門寺 因讀大藏 得李長者 華嚴論 重發信心 搜抉而索隱 嚼嚼而味精 前解轉明. 비명, p.419.)  
 3차 심기일전은 추후에 언급할 것이다.  
 “心機一轉”이라고 명명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이종익(『보조국사전서 해제』, p.7, p.9), 심재룡(“Chinul’s Place in Asian Buddhism”, pp.5-8), 최병현(『定慧結社의 趣旨와 創立過程』, p.57, p.59, p.86)이다.

지눌은 치료계획으로 제시했던 본래청정심의 확신(見性, 識自心)을 문헌—육조단경—에서 그 당위성을 다시금 확인한 후, 자신의 치료계획이었던 見性的 의미를 체득했다(意自得)고 한다. 그렇다면 지눌은 見性を 했거나, 최소한 견성의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지눌이 견성했다면 이미 頓悟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도 적어도 돈오의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그런데 돈오했거나 돈오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지눌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隱遁”한다. 치유방법으로서의 見性的 당위성을 大家(그것도 六祖 慧能이다)에게서 認可받았으며, 見性的 의미를 체득했다고 자신한 지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은둔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이른바 지눌의 “1차 心機一轉”이라는 해석의 전거이었던 비명의 윗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① 本來清淨心を 확인했다. ② ①을 최초로 깨달았다(“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것을 증득하였다.” = “頓悟”). ③ 이제 숲 속에 들어가 은둔하여 도를 구하자.

①은 禪家の 전형적인 修辭이거나 전제이니 따져볼 게 없다. 문제는 ②와 ③이다. 지눌은 왜 하필이면 眞如自性的 本來清淨을 “不立文字”인 六祖壇“經(典)”에서 최초로 확신했는가? 이 문제는 이 글에서 탐색하는 내용이 아니며, 또 육조단경이 선종의 주요 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덮어두기로 하자. 중요한 문제는 ②와 ③의 관계이다. 지눌은 본래청정심을 증득했는데(頓悟), 뭐하러 다시 도를 구하고자 하였는가? 그리고 돈오했는데 왜 산속으로 은둔하여 힘쓰는 것일까?<sup>10)</sup>

9) 偶一日於學寮閱六祖壇經至曰「眞如自性起念六根雖見聞覺知不染萬像而眞性常自在」乃驚喜得未曾有起繞佛殿頌而思之意自得也自是... 每欲棲遁林壑艱恬以求其道. 비명, p.419.

10) 이 부분에서는 일단 의문만을 남겨두고 명확한 해답은 구하지 않는다. 가상적으로 해답의 단초를 얻는다면, 지눌의 돈오-점수체계(지눌은 頓悟했어도 그간의 習氣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漸修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의 “구조”를 연상할 만하다. 즉 돈오-점수의 구조와 意自得-道를 구하기 위해 은둔함의 구조는 유사하다. 지눌이 돈오, 점수를 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頓悟란 오랜 과거로부터 미혹하고 顛倒되어 四大를 몸이라 하고 phantasy를 마음이라 하며 그것을 통틀어 나라고 생각하다가, 위에서 말한 不變·隨緣의 의미를 듣고 홀연히 영명한 知見이 자기의 진심임을 깨치는 것이다. 그런 진심은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頓이라 한다.”(頓悟者 謂無始迷倒 認此

결사가 잘 진행되고, 돈오한 후에도 지눌은 고요한 곳에서 隱居하면서 외부와 인연을 끊고 마음공부에 전념한다.<sup>11)</sup> 그리고 결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성공을 거둔 후에도, 지눌은 바른 깨달음-세상 바로 보기를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 마음공부에 힘써야 한다고(결사문을 끝맺으며) 주장한다.

엿드려 바라나니, 禪門의 사람이나 교종의 사람, 나아가 유교나 도교의 사람을 막론하고 속세를 싫어하는 뜻이 높은 사람으로서, 티끌 세상을 벗어나 세상 밖에 높이 노닐면서 마음 닦는 도를 오로지 하여 이 뜻에 부합하는 이는 비록 지난날 서로 모여 결사를 맹세한 인연이 없었더라도 결사문 뒤에 그 이름 쓰기를 허락한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깊이 공부하지 못 하더라도 항상 생각을 거두어 잡아 마음을 비추어 보기를 힘쓰면서 바른 인연을 같이 닦으면, ... 한 생각의 청정한 마음은 正覺을 이룰 수 있다.<sup>12)</sup>

#### (4-2) “세상 멀어지기”에서 “세상 들어오기”로

##### —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제안

지눌은 마음공부를 위한 “세상에서 멀어지기”를 권유·실천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오기”로 전환한다.<sup>13)</sup>

四大爲身 妄想爲心 通認爲我 若遇善友 爲說如上不變隨緣性相體用之義 忽悟靈明知見 是自眞心心本恒寂 無邊無相 卽是法身 身心不二 是爲眞我 卽與諸佛 分毫不殊 故云頓也.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p.116).

“漸修란, 비록 법신과 진심이 부처와 동일함을 돈오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걸쳐 사대가 나라고 망령스레 집착해 온 습성은 단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니므로 돈오를 근거로 하여 漸修해야 하니, 그것을 달고 또 달어서 더 이상 달 것이 없는데 이르면, 이를成佛이라 한다.”(次明漸修者 雖頓悟法身眞心 全同諸佛 而多劫妄執四大爲我 習與成性 卒難頓除 故須依悟漸修 損之又損乃至無損 卽名成佛 非此心外 有佛可成也 然雖漸修 由先已悟煩惱本空 心性本淨 故於惡斷 斷而無斷 於善修 修而無修 爲眞修斷矣.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pp.117-118).

11) 주 14) 참조

12) 伏望禪敎儒道 厭世高人 脫略塵寰 高遊物外 而專精內行之道 符於此意. 則雖無往日結契之因 許題名字於社文之後 雖未一會而蘊習 常以攝念觀照爲務 而同修正因 ... 一念淨心成正覺. 결사문, p.30.

정혜결사의 1차적인(혹은 예비적인) 목적은 마음공부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본래청정심을 봄(識自心, 見性)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눌은 세속으로부터 멀어져 운둔하라고 권유했고 자신도 이를 실행했다. 그런데 그는 은둔의 한계에 대한 감상을 술회한다. 이른바 지눌의 “3차 心機一轉”이라 불리는 의식의 전회를 보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承安 2년 무오(1198) 봄에, 승려 몇 사람과 함께 바리매 하나로 지리산을 찾아 上無住庵에 숨어 살 때에, 경계는 그윽하고 고요하여 천하에 제일이어서 참으로 편안히 참선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그리하여 바깥 인연을 물리쳐 버리고 오로지 마음공부에 전심하여 갈고 닦아 지혜를 내고 더듬어 근원까지 들어갔다...(이하 주 4) 인용문을 참조할 것.)<sup>14)</sup>

지눌은 앞서 “진여의 성품은 외부의 현상에 물들지 않아 항상自在하다.’는 대목에 이르러, 이에 놀라고 기뻐하며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것을 증득하였다. 그리하여 곧 일어나 佛殿을 들고 외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 뜻을 얻었다.”라고 했으면서도, 괴로워하고 있다. “뜻을 얻었(意自得)”던 것도 모자라 “그때 부터는 … 항상 숲 속에 숨어 힘쓰면서도 조용히 도를 구하고자” 하였으면서도 괴로워하고 있다. 여기서 놀랄 만한 심적 뒤집힘이 일어났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고, 증득하고 뜻을 얻은 것이 ‘마음에 걸림이 있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스스로 증득하고 뜻을 얻었는데(위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頓悟라고 보았다.), 어째서 마음에 걸림이 생겼는가? 게다가 지눌은 “바깥 인연을 물리쳐 버리고 오로지 마음을 관찰할 때에 갈고 닦아

13) 고메즈(Luis O. Gomes)는 “세상 멀어지기에서 세상 들어오기”를 “From the Extraordinary to the Ordinary”로 표현하면서, 菩薩의 다양한 의미(Images of the Bodhisattva)가 일상성과 초일상성을 연결시킨다고 주장한다(“From the Extraordinary to the Ordinary: Images of the Bodhisattva in East Asia”, pp.144-145).

14) 至承安 二年戊午春 與禪侶數字 鉢尋勝 登智異山 隱居上無住庵 境致幽寂 甲天下 眞安禪之佳所也. 於是 屏黜外緣 專精內觀 磨淬發銳 沿尋窮源 ... 이하 주 4) 인용문. 비명, p.420.

날카로운 지혜를 내면서 ... 부지런히 수행하여 헛되이 보내지 않았지만 ... 무언가 마음 속에 걸리는 것이 있어 마치 원수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라고 술회한다.

지눌이 발견한 『大慧普覺禪師語錄』의 구절에 따르면 대혜의 수행관은, 고요한 곳/시끄러운 곳의 구분이 없는 수행·일상 생활에서의 수행이라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눌은 위와 같은 구절을 보고 "원수같이 마음에 걸리던 것이 사라져, 편하고 즐거워졌다"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전의 수행— '세상을 멀리하고 마음 안을 정리하는 수행'은 걸리는 그 무엇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본래청정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도(믿어도) 걸리는 게 있다면, 선가에서 말하는 돈오(적어도 지눌의 돈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말인 셈이다.

본래청정심을 아는 것, 부처 성품을 아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佛即是心 = 見性成佛)이라 했는데 남는게 있다니, 그것도 원수같이 걸리는 게 있다니. 지눌의 그때까지의 수행은 헛 공부였는가? 아니면 지눌이 육조단경의 '원래부터 주체에게 있는 진실한 성품은 외부의 힘에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구현을 한다'는 구절을 보고 감격한 것은 일시적인 감상에 불과했는가? 적어도 지눌의 언명을 인정하고, 혜능 이래 禪家에서 公理처럼 전제되어 온 佛性論을 인정한다면, 위의 의문은 어리석은 가정이다. 그렇다면 다른 해석, 다른 해결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지눌의 돈오는 — 본래청정심을 알고 믿음 —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나 최고의 지향이 아니라, 한 차례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구름대임을 알 수 있다(마치 체조 선수가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구름판을 힘차게 딛고 뛰는 것처럼. 체조 선수는 구름판을 밟지 못하면 높이 도약할 수 없어, 눈앞의 뒹틀에 부딪혀 나뉘고그라지고 만다).

한편, 지눌의 3차 心機—轉이라 불리는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한 평가가 있다. 최병헌은 지눌이 대혜어록의 구절을 보고 "가슴에 걸리지 않고 ... 즐거워진" 계기를 "분별의 장애를 떨쳐버림으로써 利他方便의 새로운 指導原理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상무주암에서 은거하던 중 『대혜어록』을 통하여 선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면을 발견하고 현실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되었던 것(이며) … 속세를 떠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던 정혜결사가 속세의 방향으로 돌아오면서 … 발전한 것이다”<sup>15)</sup>라고 결론짓는다. 계속해서 최병헌은 “출가자 중심의 정혜결사에서 세속인까지 망라하는 정혜결사어로 새로운 불교운동의 대상과 폭이 크게 확대”<sup>16)</sup>되었다고 덧붙인다.<sup>17)</sup>

결론적으로, 결사 대상자의 확대와 속세로 돌아옴은 지눌이 돈오라는 구름판을 밟고 도약한 운동과정이라할 수 있다. 그러면 지눌의 2차 도약은 무엇을 지향점으로 하는가?

#### 4. 結社의 목적 2: 세상구제

지눌의 2차 도약의 지향은 세상구제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지눌은 見性-頓悟라는 구름대를 밟고 飛上했는데(세속으로 돌아옴, 대중을 끌어안음), 이는 세상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지눌이 결사를 추진했던 동기 중 하나는 당시의 승려가 利他行에 힘쓰지 않고 개인적 안락에 빠져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한다. 이런 비판의식에서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구제함을 목적으로 결사를 추진하자고 권유했던 것이다. 물론 정혜결사는 1차적으론 불교의 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마음공부-禪定-見性を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눌에 따르면 마음공부 선정 자체로는 불교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없고, 마음 정화마저도 이룰 수 없다. 이미 지눌은 자기 마음의 본래정정성을 자득했는데도, 남은 게 있었고, 무엇인가 걸리는 게 있어 원수처럼 괴롭힌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마음정화를 위해서도 마음공부가 아닌 다른 무엇

15) 이상, 최병헌, 위의 논문, p.88.

16) 최병헌, 위의 논문, p.86.

17) 최병헌을 비롯한 학자들은 비명의 아래 구절은 근거로 정혜결사가 현실사회로 돌아왔다고 평가한다: 五年庚申 移居松廣山吉祥寺 領導 ... 或修禪 ... 四方緇白 聞風輻輳 蔚爲盛集 ... 偕來者 王公士庶 投名入社 亦數百人. 비명, p.420.

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구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눌의 경우에는 마음공부는 세상구제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의미를 가지며 공부가 온전히 수행될 수 있다. 결사의 목적과 그 목적들(마음공부-세상구제)간의 관계에 대한 이 글의 논지는, 결사의 동기를 말하는 지눌의 언명(결사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옛 스님이 말씀하셨다: ‘보살은 본래 남을 제도하려 하기 때문에 먼저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 한가하고 고요한 곳이라야 선정을 이루기 쉽고 욕심이 없는 두타행이라야 성인의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 했으니, 이것이 증거이다. 이미 남을 제도할 서원을 세웠으면 먼저 선정과 지혜를 닦으라. 도력이 있으면 자비를 구름처럼 펼치고, [보살]행의 바다에 물결을 출렁거리게 하여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구제하고 삼보에 공양하여 불가의 사명을 이룰 것이니, 어찌 고요함에만 탐착하는 무리들과 같겠는가?<sup>18)</sup>

위의 인용문에서 지눌은 자신들(결사 참여자)은 당시의 수행승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 자부심의 핵심은 중생구제에 있다. 그리고 중생구제(救拔一切苦惱衆生)가 불교의 사명(佛家業)이라고 주장한다. 중생구제가 불교의 사명이라 했고, 결사의 진정한 목적이라했는데, 이 중생구제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지눌의 말에 따르면 세상구제(度他)는 마음공부를 근거(先修定慧)로 한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 전개했던 논지—견성(돈오)라는 도약대를 통한 2차 도약, 이 2차 도약은 세상구제를 지향한다—는 위의 인용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눌은 위의 인용문에서 마음공부-선정과 세상(중생)구제를 매개하는 개념으로 “菩薩”을 등장시키고 있다.

18) 先德曰 菩薩本爲度他 是以先修定慧 空閑靜處 禪觀易成 少欲頭陀 能入聖道 此其證也 既發度他之愿 先修定慧 有道力則雲布慈門 波騰行海 窮未來際 救拔一切苦惱衆生 供養三寶 紹佛家業 豈同趣寂之徒也. 결사문, p.22.

## 5. 마음공부(목적1)와 세상구제(목적2)를 매개하는 개념 — “菩薩”과 “方便”

지눌이 도모한 結社의 목적은 마음공부와 세상구제였으며, 지눌이 생각한 불교의 사명도 마음공부를 근거한 세상구제였다. 그리고 지눌은 마음공부와 세상구제를 추구하는 전형으로서 菩薩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지눌에게서 마음공부와 세상구제를 매개하는 개념은 보살이라 해도 무리가 없다.<sup>19)</sup> 그런데 또 하나의 개념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方便”이다. 지눌은 보살(도)을 설명하면서 방편개념을 등장시켰다. 지눌에 따르면 선정-마음공부마저도 방편이다. 이는 이 글에서 見性(頓悟)는 구름판이지 최후의 지향점이거나 도약 자체가 아니라고 가정한 점과 일치한다.

(비록) 방편으로서의 선정을 가져(수행하여) [마음이] 혼미하게 흠여짐을 벗어버리는 공과가 있다해도, 대상에 따라 일어난 분별 인식은 眞性에서 일어난 것(性起)임을 안다. 그러므로 [인식은] 청정한 본성에 따르기에, [대상을] 포섭하여 [주관을 개입하는] 성질이 없으며, 외부의 [대상과] 관계맺으면서 [내 마음에] 잘 들어맞거나 위배하여

19) 고메즈는 보살은 慈悲(karuna)를 상징하며, 보살의 자비는 세계의 空함(sunya)를 인식함에서 비롯한다고 말한다. 공함을 인식하는 지혜는 “세계 전체가 무가치하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 온전한 定과 慧를 통해 개발된 청정한 마음으로 ... 시야를 열어 다른 사람들(衆生) 또한 부처의 성품(佛性)을 지니고 있는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고메즈, 앞의 논문, p.142).

같은 논지로 그는 <空과 慈悲, 倫理 그리고 사회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공의 실현을 윤리적 무관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Emptiness and Moral Perfection”, p.371). “공의 논리가 노리는 것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정함이지, 윤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의 논리에 따르면 부정되어야 할 것은 실체와 이에 대한 개념들이지 윤리적 가치는 아니다.”(앞의 논문, p.372).

또한 썸만(R. Therman)은 “대승불교에서는 개체적 해탈(individual liberation)과 전체적 해탈 즉, 사회적 완성(universal liberation)을 일치시킨다.”고 주장하면서(“Guidelines for Buddhist Social Activism”, p.19), 일치의 방법과 이론적 근거로 지혜와 실천, 즉 空과 慈悲(보살정신)를 들고 있다(앞의 논문, p.21).



도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이해하여, 나와 남/ 내가 인식하는 능력과 인식되는 대상[의 차별]이 없다. ... 이와 같이 법에 따라 짚기를 조절하고, 이치에 잘 들어맞는 지혜로 더욱 밝게 하여, 인연 따라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菩薩道를 시행하면, 비록 [부조리가 만연한] 삼계 안에 있다하더라도 어느 곳이나 法性的 淨土이라라.<sup>20)</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선정마저도 방편이다. 그렇다면 지눌이 생각한 불교는 <“方便”으로서의 선정·마음공부와 見性·頓悟, 이를 근거한 “菩薩”행과 세상구제>라는 연속과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sup>21)</sup>

더불어 지눌이 李通玄의 華嚴論을 정리·요약하면서 “보살”과 “방편”개념이 나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요약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눌이 이 개념들을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sup>22)</sup> 나아가 지눌은 마음공부(돈오)와 세상구제(보살행)를 상호 요청하는 관계로 정립하기 위해 숙고했으며, 그 결과로 보살과 방편이라는 개념을 논리적 매개개념으로 즐겨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지눌이 화엄론에서 요약한 부분 가운데 “보살”에 관한 대표적인 부분을 보자.

유마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비록 깨달음(正覺)을 이루었다해도 법륜(法輪)을 굴려야 보살도를 버리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보살행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근거로 善財는 ... 모든 부처의 경지를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지혜가 밝게 빛나고 진리의 가르침을 두루 전할 수 있는 — 즉 깨달음을 이룬(便成正覺) — 직후, 비로소 [세상을 함께 살면서 깨달음을 구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보살도를

20) 雖有方便三昧 離昏散之功 以知緣慮分別 是真性中緣起故 任性淨而無取攝之相 雖涉外緣違順之境 爲了唯心 無自他能所故 ... 如是任法 調治習氣 使稱理智增明 隨緣利物 行菩薩道 雖處三界內 無非法性淨土. 결사문, p.22.

21) 결사문에는 菩薩(行), 慈悲, 利他를 말하는 부분이 또 있다. “慈悲의 서원이 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고 죽는(윤회를) 싫어하지 않고 자기를 이롭게 하며 남도 이롭게 하여, 자비와 지혜를 더욱 늘리어 큰 보리를 구한다. ... 그는 따로 淨土를 구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만나 타락할 걱정이 없다.” 或有悲願重者 於此世界 不厭生死 自利利他 增長悲智 求大菩提 ... 此人不別求淨土 亦無逢難退失之患. 결사문 pp.23-24.

22) 『普照全書』(昇州, 佛日出版社, 1989)를 저본으로 한 지눌의 남은 문건에는 “菩薩”이 592번, “方便”이 92번이나 등장한다.

구하고 보살행을 실행한다. ... 선재가 깨달은 후, 비로소 보살도를 구하고 보살행을 실행한 까닭은,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엮매임(인연에 엮킴)에 들어가길 감당할 수 있고, 엮매임에 처해 있어도 속박되지 않아야 비로소 속박을 풀어버리는 가르침을 중생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는 속박되어 있으면서 다른 이의 속박을 풀어주는 경우는 없다. ... 마땅히 알아라: 보살행을 실행하려면 먼저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느니라!<sup>23)</sup>

위의 내용은 앞서 보았던 “마음공부·돈오-(세상 들어가기)-보살행-세상구제”와 일치한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깨달음을 근거로 진리(가르침)의 수레 바퀴를 굴리는 것이 보살행이다.(雖成正覺 轉于法輪 不捨菩薩道 是菩薩行故.) 진리의 수레 바퀴는 자체로서 단척 있는 완전체(원형)이지만, 진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운동한다). 수레바퀴의 운동은 어떤 힘에 의해서 비롯되는데, 그 힘은 正覺, 보살도이다. 다시 말해 정각 후에 수레를 굴리는 운동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보살행이다. ② 깨달음·돈오 후에 세상사람에 다가간다. 이 과정에서 보살도를 구하고 보살행을 한다(便成正覺然後 始詣諸友 求菩薩道 行菩薩行). 결코 正覺이 최후, 혹은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돈오 후에도 남은 게 있으니, 이윽에 다가가기(“세상 들어가기”)와 보살행을 시행해야 한다. 즉, 깨달음-세상을 올바르게 봄이 목표가 아니라, 行이 목표다. 깨달았지만, 깨닫지 못한 “세간(세상사람)”의 방식으로 보살행을 행해야 한다. ③ 깨달은 후에야 자신을 구속할지도 모르는 세속으로 들어올 자격이 갖추어진다. 깨닫고서 세속에 들어오면, 구속당할 환경에 둘러쌓여 있어도 (둘러쌓여 있을 뿐) 속박당하지 않는다(爲覺道之後 方堪入纏 處纏無縛 始能爲衆生 說法解縛).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의 고통받는 못 사람에게다가 그들을 위해 속박을 풀어해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④ 다

23) 淨名經云「雖成正覺 轉于法輪 不捨菩薩道 是菩薩行故。」以此善財, ... 得憶念一切諸佛境界 智慧 光明 普見法門 即便成正覺然後 始詣諸友 求菩薩道 行菩薩行, ... 還如善財證覺之後 方求菩薩道 行菩薩行 何以然者 爲覺道之後 方堪入纏 處纏無縛 始能爲衆生 說法解縛 若自有縛 能解他縛 無有是處. ... 當知 欲行菩薩行 先成正覺. pp.208-209, 화엄론절요.

른 사람의 속박을 풀어내려면 자신의 속박부터 풀어야 한다. 즉 세상구제를 하려면 깨달아야 한다(若自有縛 能解他縛 無有是處 ... 當知欲行菩薩行 先成正覺).

위의 인용문에서 지눌은, 보살행(세상구제)은 반드시 正覺(頓悟)을 요청한다고 설정한다. 그리고 정각(돈오)은 보살행(세상구제)를 통해 완성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지눌의 체계(『勸修定慧結社文』)에서 돈오는 최고의 지향이 아니라 세상구제라는 지향을 위한 도약판이며, 세상구제에는 돈오라는 도약판이 필수적이다.

지눌의 마음공부와 세상구제의 구도에 등장하는 보살개념을 분석하는 데에는, 고메즈의 보살개념 분석이 유용하다. 고메즈는 『華嚴經』 「入法界品」에 나오는 보살개념을 (1) 天上의 보살; “the Celestial Bodhisattava”, (2) 윤리교사와 그 모델로서의 보살; “the Ethical Bodhisattava”, (3) 空을 자각한 종교적 완성태로서의 보살; “the Mystical Bodhisattava”, (4) 미완성 단계에서 노력하는 보살; “the Immanent Bodhisattava”로 분류<sup>24)</sup>하면서, (1) (2) (3) (4)의 6가지 조합<sup>25)</sup>을 대표적으로 제시한다. 이 중 (3)(2)의 조합이 “空”을 자각했으며(頓悟) 세상 들어오기를 시도하여 세상구제라는 도약을 하는 지눌의 구도와 일치한다. 즉, 돈오하여(Liveration) 세상으로 들어와 (return to Ordinary) 세상을 구제하는(Ethical commitment) 지눌의 구도는 『華嚴經』 「入法界品」의 보살 중 (3)(2)의 조합과 일치한다. 그리고 고메즈는 보살이라는 이상형의 세상 멀어지기와 세상 들어오기를 “깨달음에 대한 포기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말하면서, 이에 “方便”이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분석한다.<sup>26)</sup> 고메즈의 『華嚴經』 분석과 지눌의 문건을 비교해 보아도, 마음공부(돈오)-세상구제의 구도에 “보살”과 “방편”은 이 구도를 완성시키는 필수 매개개념임을 알 수 있다.

24) “From the Extraordinary to the Ordinary: Images of the Bodhisattva in East Asia”, p.144.

25) 6가지 조합은 (1)(2), (1)(3), (3)(2), (1)(4), (2)(4), (3)(4)이다.

26) 위의 논문, p.178.

## 6. 땃음말: 牧牛子와 牧牛圖

1. 지금까지 지눌의 사상을 “선불교의 사회(세계)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라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지눌의 경우”, 특히 정혜결사를 둘러싼 그의 글은 일반적으로 (선)불교하면 연상되는 “세상 멀어지기-마음공부”의 시각만으로는 검색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다. 지눌식 불교 이해는 “세상에서 멀어지기”-“마음공부·見性·頓悟”-“세상으로 들어오기”-“세상구제”라는 구도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비로서 총체적으로 검색할 수 있었다.

2. 지눌의 정혜결사의 목적은 ① 마음공부와 ② 세상구제였다. ①과 ②를 위한 제안으로 지눌은 ①' 세상에서 멀어지기와 ②' 세상으로 들어오기라는 예비과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①과 ②, ①'와 ②'라는 개념쌍들은 “菩薩”과 “方便”이라는 매개개념으로 연결되었다. 보살과 방편이라는 매개개념을 통해, 지눌은 ①과 ②, ①'와 ②'의 관계를 모순되지 않게 연결시켰다.

3. 『勸修定慧結社文』을 통해 본, ①-②의 체계에서 마음공부(와 그 결과물인 돈오)는 세상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세상구제라는 도약은 돈오라는 도약판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지눌의 “頓悟漸修”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돈오를 전제로 한 漸修는, 돈오를 전제로 한 “세상구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4. 牧牛子 지눌의 “세상에서 멀어지기”-“마음공부·見性·頓悟”-“세상으로 돌아오기”-“세상구제”의 프로그램은, 十牛圖(牧牛圖)의 “소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감”-“尋牛”-“人牛具忘; 사람과 소의 일체화”-“入塵垂手”의 연속 그림을 연상시킨다. 심우도와 비교해 보아도 지눌이라는 개별 프로그램은 선불교의 보편 프로그램에서도 작동한다. 다시 말해 “지눌의 경우”를 통해 본, 선불교의 세계관과 선불교의 지향은 “세상에서 멀어지기”-“마음공부”가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오기”-“세상구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27) 허슈(Peter D. Hershock)은 “(선의) 깨달음은 상호관계(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선의 깨달음은 결코 개별체험일 수 없으며, 조금도 의미상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이다”라고 주장한다. *Liberating Intimacy*, 서문 p.10.

참고문헌

知訥, 勸修定慧結社文.

\_\_\_\_\_, 修心訣.

\_\_\_\_\_,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_\_\_\_\_, 華嚴論節要.

金君緞 撰, 昇平府曹溪山修禪社佛日普照國師碑銘 并序.

이상, 『普照全書』(昇州, 佛日出版社, 1989)에 수록된 판본을  
저본으로한다.

圭峰宗密, 『禪源諸詮集都序』, 大正新修大藏經, 第48卷.

\_\_\_\_\_, 『中華傳地禪門師資承襲圖』, 卍續藏經, 第110卷, 藏經書院  
版, 新文豐出版公司.

이중익, 「보조국사전서 해제」, 『보조국사전서』, 서울, 고려원, 1990.

최병환, 「修善結社의 思想史의 意義」, 普照思想 1.

\_\_\_\_\_, 「定慧結社의 趣旨와 創立過程」, 普照思想 56합집.

한기두, 「定慧結社의 本質과 그 變遷」, 普照思想 1.

Robert E. Buswell Jr., *The Korean Approach to Zen-The  
Collected Work of Chinul*, Univ. of Hawaii Press,  
Honolulu, 1983.

Ruben L. Habito, *Total liberation, Zen spirituality and social  
dimen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89.

Christopher Ives, *Zen Awakening and Society*, Univ. of Hawaii  
Press, Honolulu, 1992.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Scribner,  
NY, 1960.

Peter D. Hershock, *Liberating Intimacy-Enlightenment and  
Social Virtuosity in Ch'an Buddhism*, SUNY Press,  
Albany, 1996.

심재룡, "Chinul's Place in Asian Buddhism", 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Conference 발표논문 1995, 9.

- Luis O. Gomes, "From the Extraordinary to the Ordinary: Images of the Bodhisattva in East Asia", *The Christ and The Bodhisattva*, SUNY Press, Albany, 1987.
- \_\_\_\_\_, "Emptiness and Moral Perfection"(PEW, 1973).
- Charles Wei-hsun Fu, "Morality or Beyond: The Neo-Confucian confrontation with Mahayana Buddhism"(PEW, 1973).
- Winston L. King, "Is There a Buddhist Ethic for the Mordern World?"(*Eastern Buddhist*, vol.25, No.2, 1992 Aut.).
- \_\_\_\_\_, "Buddhist Self-World Theory and Buddhist Ethics"(*Eastern Buddhist*, vol.22, No.2, 1989 Aut.).
- \_\_\_\_\_, "A Buddhist Ethic without Karmic Rebirth?"(*Journal of Buddhist Ethics* vol.1, 1994).
- Therman, R., "Guidlines for Buddhist Social Activism"(*Eastern Buddhist*, vol.16, No.1, 1983 Spr.).
- James Whitehill, "Is There a Zen Ethic?"(*Eastern Buddhist*, vol.20, No.1, 1987 Spr.).
- Brear, A. D., "The Nature and Status of Moral Behavior in Zen Buddhist Tradition"(PEW, 1974).